

## 북한의 2012년 준비 동향과 정세 전망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33

2012년은 한국, 북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2013년 이후를 준비하는 년도가 된다. 이 네 나라 모두에서 2012년에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이며, 2013년 이후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본격적 대결과 협상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과 2013년 이후를 예견하면서 북한이 당면하는 도전과 과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준비해 왔을까?

이를 세 가지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단기적 과제는 2012년 전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잔치들을 잘 치르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이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면 과제로 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목표 및 이데올로기 상징 제시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권력연합의 경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2012년부터 북한 대내외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셋째, 외교안보적으로 2012년의 북한 행마는 2013년 이후를 내다보는 선제 행마가 될 것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본격적 외교적 대결과 협상은 2013년 이후에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연계되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 글은 첫째 문제, 즉 북한이 2012년을 '경축'하기 위해 특히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의 문제를 서술하는 것에 국한한다.

## 2012년의 의미

우선 북한당국이 스스로 제기한 바에 따라 2012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자. 북한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낀다’는 것을 입증할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다가 김정일 70회(2.16)와 김일성 100회 생일(4.15), 군창건 80돌(4.25) 등의 경축 행사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경축 행사 중에서 핵심은 4.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월 14일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4월 15일에 맞추어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및 문화봉사시설 건설 완수, 105층 류경호텔(을 25층까지) 개장이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영변에 건설하고 있는 실험용 경수로도 완공 예정이 2012년이다. 여러 행사의 핵심 메시지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곧 북한 국가와 정권이 현재 굳건하고 미래가 영원할 것임을 보장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각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은 2012년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기획하고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 전민식량공급 정상화

먼저 북한은 2012년 김정은의 전면 등장에 맞추어 전민식량공급을 정상화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sup>1)</sup> 북한이 1년 동안 식량을 정상 공급하려면 총 360만 톤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정권은 2011년 가용 식량 확보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 다만 농업 개혁 조치는 빠졌다. 2010년 10월 북한은 군량미 징발을 중단했다가 12월 다시 시작했다. 2010년 말부터 북한은 해외 식량 유입을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대폭 장려했다. 광산물 수출이 늘고 식량 및 비료 수입도 얼마간 증가했었다. 하지만 이 식량은 군대를 비롯하여 평양 10만호 건설과 같은 정권 핵심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 북한은 해외 원조단체와의 접촉을 강화했고, 그들의 모니터링 강화 및 폐쇄 지역 접근 요구에 훨씬 협조적이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해외주재원 및 무역성이 의무적으로 해외로부터 일정량의 식량을 조달할 것을 지시했었다. 2011년에도 군량미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하달되었다.<sup>2)</sup> 전민식량공급 정상화 준비작업으로 북한은 10월경부터 북한 전 지역에서 주민 식량 배급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sup>3)</sup>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약 8.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up>4)</sup>

현실적으로 볼 때, 2011년 북한당국이 배급제를 정상화할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 동안 2012년 경축을 위해 비축해 놓은 식량을 풀면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배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 정상화 조치는 장마당 활동에 대한 억압 정

- 1) 이명호, “최근 북한 식량문제, 2012년 전민식량배급정상화 목표가 주원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 4월 28일; 김준호, “북 ‘내년부터 전면 식량배급 재개’ 선전,”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31일; 이준삼, “北 ‘강성대국 원년엔 식량배급 정상화’ 선전몰두,” 『연합뉴스』, 2011년 11월 1일.
- 2) 문성휘, “북, 군량미 모집 총력, ... 식량난 악화 우려,”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28일.
- 3) 김준호, “북, 식량배급 정상화 준비작업(?),”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1월 24일.
- 4) 이성한, “북한 올해 곡물 수확 8.5% 증가,” 『연합뉴스』, 2011년 11월 26일.

책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북한은 2005년에도 식량 거래 금지를 비롯한 장마당 억제조치와 동시에 식량배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조치는 몇 달 만에 흐지부지되었다. 2012년에도 배급을 정상화한다는 구실 아래 장사 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할 가능성이 높다.<sup>5)</sup> 또한 평양주민들과 지방 주민들간의 차별배급 심화가 불가피하여 지방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다.

## 평양시 10만 세대 및 문화봉사시설 건설

강성대국 진입 상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및 문화봉사시설 건설이다. 10만 세대 건설 공사는 2009년 11월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당초 2010년 용성·서포·역포 지구 3만 3천 세대, 2011년 만경대지구 3만 세대, 2012년 4월말 만경대지구 3만 5천 세대의 건설을 완료해 총 10만 세대를 완공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척이 매우 부진하자 2011년 4월 북한당국은 평양 10만 세대 건설 사업 목표를 2만~2만 5천 세대로 대폭 줄였다는 주장도 있다.<sup>6)</sup> 특히 2011년에는 만수대 지구에 고층 아파트 3천 세대를 건설하는 공사,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서있는 평양의 중심거리인 창전거리 건설 사업에 역량을 총 집중했다.<sup>7)</sup> 만수대 지구는 출신성분이 좋고 내각 및 중앙기관 근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한 창전거리는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광장이 가까이 있어 1호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곳이다. 조선신보는 “김일성 주석님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 지구의 건설은 주석님의 동상을 보다 정중히, 보다 환하게 모시기 위한 사업으로서 빠른 속도로 최상의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8)</sup>

북한은 평양에서 10만 세대 및 문화봉사시설 건설 공사를 위해 가히 전국가적 역량을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 재원 마련, 자재 공급, 실제 공사 진행을 위해 내각의 각 기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검찰소, 대학, 군부기관 등 거의 모든 주요 권력 기관이 동원되었다.<sup>9)</sup> 일반 주민들도 각종 명목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면서 10만 세대 건설 비용조달에 참여해야 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공사에 동원할 목적으로 평양소재 대학과 지방의 큰 대학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1년 4월까지 휴교 조치되었다.<sup>10)</sup>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상징물 건설 중간 점검일인 2011년 10월 10일<sup>11)</sup>까지 완공해야 할

5) 문성희, “북 주민들 ‘배급 필요없다, 장사 허용하라,’” 『자유북한방송』, 2011년 11월 11일.

6) 김용훈, “北 ‘평양 10만호 건설’ 1/4 수준으로 축소,” 『데일리NK』, 2011년 6월 20일.

7) 최민석, “북 만수대 아파트 건설 ‘핵심층에 선심용,’”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7월 14일; 박종국, “北, 평양 주택 3만가구 완공(中매체),” 『연합뉴스』, 2011년 8월 4일; 이범기, “‘평양 중심거리 한심하다’ 김정일 이 한마디에… 창전거리 건설에 자재·인력 집중…내년까지 대학생 총 동원,” 『데일리NK』, 2011년 8월 24일.

8) 강이록, “주석님탄생 100돐 맞으며 변모되는 평양,” 『조선신보』, 2011년 10월 12일.

9) 좋은벗들, “기획연재 - 2012, 강성대국의 조건(3),” 『오늘의 북한소식』, 제413호, 2011년 7월 27일; 최민석, “북 주민, 10만 세대 징수금 ‘일사금’ 비난,”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8월 11일.; 최민석, “자금난 북, 10만세대 지원금 징수,”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7월 11일.

10) 최민석, “북, 대학휴교...10만세대 건설 동원,”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6월 30일; 양희정, “대학휴교는 강성대국 건설에 역행”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7월 5일; 전영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휴교 중 노력 동원 사진 입수,” 『미국의 소리』, 2011년 9월 2일.

중요 건설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sup>12)</sup> 여기에는 평양 만수대지구 살림집 건설에서 부실 공사, 희천발전소와 백두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체 등이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물론 김정은도 분노했다고 했다.

## 전력 공급 증가

강성대국 진입의 3대 상징은 식량 확보, 10만 세대 건설과 함께 전력 문제 해결이다. 전력부에서는 30만 KW규모의 희천발전소와 5만 KW급의 어랑천 발전소, 백두선군청년발전소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발전소가 완공되면 총 40만 KW의 전력 공급이 증가한다. 40만 KW는 한국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4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북한은 특히 희천발전소 건설에 집중했다. 희천발전소는 강성대국 진입의 상징물로 간주되고 있다. 자강도 희천 부근에는 군수공장이 밀집해있다. 김정일은 2010년 4번, 2011년 2번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2011년 총리 최영림도 희천발전소를 ‘현지요해’했다.<sup>13)</sup> 희천발전소 공사는 2001년 3월 시작되었고, 2011년 3월 김정일의 지시로 2012년 1월까지 완공예정이다.<sup>14)</sup> 그런데 희천발전소 1단계 공사는 끝이 났지만, 2단계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다고 한다.<sup>15)</sup> 그 이유는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각 단위별로 분공을 내렸지만, 1단계 공사하는 데만도 수많은 부담을 지웠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을 지고자 하는 데가 없었다. 자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외장 건설만 대충 끝내고 2단계 공사에 필요한 설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설비를 들여와 공사를 재개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 사치품 수입 증가

이밖에도 2009년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사치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발견된다.<sup>16)</sup> 북한은 2008년 2억 7214만 달러, 2009년에는 이보다 18.5% 증가한 3억 2253만 달러, 2010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38.3%가 급증한 4억 4617만 달러(4811억 원) 어치의 사치품을 수입했다. 북한의 2008~2010년간 사치품 수입 총액은 10억 4084만 달러(1조 1225억)에 달했다. 이 금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 총액(7억 2천 2만 달러)보다 44.5% 많은 액수이다.

11) 정무현,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대로 추진, 10.10절까지 골조공사 완성,” 『조선신보』, 2011년 8월 11일.

12) 박성우-문성휘, “김정일, 노동당 창건일 준비에 화를 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17일.

13) 백나리, “北영도자 전담 현지시찰…총리도 나서,” 『연합뉴스』, 2011년 3월 23일.

14) 장용훈, “北권부가 침착산중 자강도 희천 애착하는 까닭,” 『연합뉴스』, 2011년 3월 31일.

15) 좋은벗들, “기획연재 - 2012, 강성대국의 조건(2) 전력공급에 전력을 다하라,” 『오늘의 북한소식』, 제412호, 2011년 7월 20일.

16) 조종익, “김정은 등장 이후 北 사치품 수입 급증했다 [국감]윤상현 의원,” 『데일리NK』, 2011년 9월 19일.

북한이 수입하는 사치품 품목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영화용 기기, 화장품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죽제품이나 귀금속, 악기의 수입은 줄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 증가는 내부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라 부유층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야할 필요가 증가한 것 그리고 김정은 등장에 따라 간부층 선물용 수요가 증가한 것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 잔치를 위해 2011년도에 사치품 수입량은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 내부 외화 흡수 조치

이상에서 언급한 2012년 행사를 치루자면, 상당 규모의 추가적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외화수요가 증가한다. 2010년과 2011년 북한당국의 실질 경제 정책<sup>17)</sup>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이러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방법이 활용되었다. 여기서는 약간 이례적인 북한식 방법만 소개한다. 북한당국과 주요 기관이 북한 내부에서 외화를 수집하여 확보하려 했던 조치가 그것이다.

내부 외화 흡수 방법을 보면 흥미롭다. 2011년 6월 초 평양 소재 고려은행과 무역은행은 개인환전상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국내 외화를 사들였다.<sup>18)</sup> 5월 경 신의주와 나선의 큰 세관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경 지역 세관들이 한 달 남짓 봉쇄되었다. 장기 세관 봉쇄는 수입 감소, 국내 외화수요 감소, 국내외화 시세 하락을 초래하는데, 바로 이때 북한당국이 외화를 사들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11월 경 외화별이 기관들이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개인환전상들로 부터 돈을 꾸었다.<sup>19)</sup> 그 이유는 10월 10일 김정은이 2012년 4월 15일까지 ‘온 나라 컴퓨터화’, ‘공장, 기업소 현대화’를 완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때문에 컴퓨터 수입과 공장 꾸미기 외장재 수입 수요가 다시 말해 외화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자면, 북한당국이 내부 외화 수집 정책을 취할 때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 주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었다.

## 기타 사업 그리고 주민 동원 및 부담 전가

북한은 과거에도 어떤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이를 구실로 주민 노력 동원 강화, 물품 헌납 강화 및 정치적 기강잡기에 나서곤 했다. 2012년의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중요 행사이며, 이에 따라 상응하는 강도로 조치가 취해졌다.

2011년 1월에는 김일성 출생 100돌을 충성심의 열도로 맞이하기 위한 ‘100돌 상무’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sup>20)</sup> 상무가 조직된 목적은 주민 내부에서 비사회주의 풍조를 교정하는 것이다. 7월

17) 여기서 ‘실질 경제정책’은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공식 공표된 정책과 구별하여, 북한 정권이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식 공표된 정책에는 그 어디에도 북한당국이 ‘핵심계층 거주 평양 특별대우’한다는 정책 선언이 없다.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서 핵심은 실질정책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귀원, “강성대국 앞둔 북, 핵심계층거주 평양 특별대우,” 『연합뉴스』, 2011년 11월 13일.

18) 최오남, “김일성 생일 100돌 준비로 북한 내 외화 싸늘이,” 『열린북한방송』, 2011년 6월 13일.

19) 문성휘, “강성대국 정책으로 북 주민들 최악의 겨울,”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1월 24일.

중순 경 북한 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을 더 큰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주민들에게 충성의 선물운동을 강요하고 나섰다.<sup>21)</sup> 함경북도는 회령시 오봉리에 1만 마리 규모의 돼지목장을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강도의 경우 해산시는 3000KW 중소형 강구발전소, 백암군은 감자전분공장, 운흥군은 유리공장, 보천군은 담수양어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9월 경 선전선동부는 ‘강성대국은 우리 자신이 마련하고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강연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sup>22)</sup> 2011년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도시 미화 사업이 벌어졌다.<sup>23)</sup> 평양에서는 장미 심기 운동이 벌어졌다.<sup>24)</sup>

## 후유증과 전망

돌이켜 보면, 북한에서 적어도 2010년과 2011년이 마치 2012년의 4.15를 위해 존재했던 것 같다. 북한정권은 2012년을 놓고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식으로 기대수준을 높여놓았고, 또한 무엇보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4.15) 행사를 치러야 한다. 2010년과 2011년의 북한당국의 실질 정책과 전국가적 노력은 2012년 행사 준비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2012년 전반기에 일정하게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4.15 이후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당국은 2012년에 대한 기대수준을 한껏 높여 놓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북한당국은 2012년 잔치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자. 먼저 2012년은 북한 주민에게 또 다시 상실감을 재확인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주민들이 크게 믿지 않았겠지만 기대수준이 컸던 만큼 주민의 상실감도 클 것이고, 상실감은 어디론가 그 배출구를 찾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그 상실감을 억제하거나 배출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전쟁설’을 퍼뜨리는 것이다.<sup>25)</sup> ‘2012년 전쟁설’은 내년에 남북 간에 대규모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소문, 또는 김정일이 ‘2012년 수령님 탄생 백 뿔을 맞으며 (전쟁을 통해) 조국통일을 선물한다’는 것으로, 최근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 후반기는 대내적으로 경축 잔치 후 허탈감 심각화 관리문제, 대외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2013년 이후 협상 입지 강화를 고려하여, 단지 소문 유포 수준을 넘어 각종 긴장 조성 과 핵무기 실험 등의 실지 행동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20) 남설희, “김일성 탄생 100돌 상무 벌써부터 조직,” 『열린북한방송』, 2011년 4월 12일.

21) 문성휘, “북, 주민들에 ‘충성의 선물운동’ 강요,”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7월 13일.

22) 이귀원, “北 노동당, 주민에 ‘강성대국 헌금’ 강요,” 『연합뉴스』, 2011년 9월 15일.

23) 이석영, “도둑 들끓는데 ‘올바자 없애라’ 지시,” 『데일리NK』, 2011년 7월 26일.

24) 최민석, “먹을 것도 없는데... 평양 장미심기 운동,”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8월 1일.

25) 이금룡, 안성규, “북 주민 ‘요즘 잠잠했으니 올해 꼭 무슨 일 난다더라,’” 『중앙선데이』, 2011년 11월 20일; 윤일진, “평양발 ‘전쟁설’은 北 체제결속용 여론공작,” 『연합뉴스』, 2011년 11월 24일.

다음으로, 2012년 행사 준비를 위한 경제운영은 북한 경제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이미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2년 엄청난 행사용 지출은 그 성격상 비생산적 소비지출이다. 반-시장정책에 따른 경제부진 속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수탈 강화식 방법(자원 수출 증가, 기관 및 주민의 상납금 증가, 비정상적 국내 외화 수집)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경제 구조 왜곡(자원수출 의존성 구조의 심화, 생산투자 중단 연장)으로 인한 탈-공업화,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원 배분 증가)과 주민 소비 수준 악화를 강화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수입 수요의 급등에 따른 외화 수요 급증, 행사비용조달을 위한 북한원 공급 증가, 이에 따른 환율 급등, 수입 물가 상승, 내부 물가 상승 등은 경제체질 추가 악화, 제조업 부문 경쟁력 추가 악화, 경제 파동성 강화, 주민 생활 궁핍화 추가 강화 등을 초래한다. 여기에다가 국경단속 강화와 자의적 세관폐쇄로 수출입 파동, 석탄과 잉 수출, 무역일꾼 물갈이로 인한 무역 거래 폐해 등이 추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수탈 강화 속 장기 경제침체를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의 모멘텀이 강화되었다. 2012년 4.15 행사를 위한 준비는 1980년대 후반 1989년 '세계 청년학생 평화축전' 준비를 연상시킨다. 북한 경제는 '평축' 준비를 위한 1980년대 후반의 무리한 정책 때문에 이미 붕괴 문턱에 들어섰었다.

2012년 하반기가 되면, 북한당국은 아마도 주민의 상실감 증가와 경제 상황 추가 악화라는 이중 문제에 직면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 선택이 있을 것이다. 첫째, 앞서 지적한 대로 외부 긴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하여 높아진 주민 불만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둘째, 외화벌이 증대 및 원조유입 확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기에는 자원수출 증가, 폐쇄형 특구 사업, 노동력 수출, 관광 증대, 핵외교, 식량외교 등이 있다. 이 때문에 대외 유화 공세를 통해 상대방을 실험해보려고 할 수 있다. 셋째, 만약 외화벌이 증대와 외부 원조 유입 증가 노력에 실패한다면, 마지막 선택으로 대내 정치위험을 감수하고 불가피 국내경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시도할 수도 있다.